광주 첫 사립외고 무산될 듯

공모 하루 앞두고 설립신청 한 곳도 없어

시비 300억 지원되면 공외고 설립 추진 모색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희망자가 없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사립 외고 설립 희망자를 공모한 결과, 마감일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설립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당초 문의를 해왔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죽호학원(금호고·중앙여고·금파공고·중앙중) ▲정형래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장이 창설한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 ▲지역 중견건설사인 남화토건이 세운 학교법인 유당학원(서석고·서석중) 등 학교법인 3곳과 독지가 1명 중 관심을 나타냈던 죽호학원과 보문학숙이 설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마감일인 31일이 지방선거로 인한 휴무일인 만큼 다음 달 1일까지 접수를 받되, 희망자가 제안서를 낼 의향을 밝혀오면 일정 기간 공모기간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 외고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가 끝난 후 광주시와 협의해 광주시의 지방비 300억원 지원을 전제로 공립 외고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김정호 학교운영지원과장은 "기존 학교건물 리모델링과 기숙사 신축에 최소 1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초기 재정부담이 커 일부 관심이 있는 학교법인에서도 선뜻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아프간을 도웁시다" '아시아협력기구 광주지부'(지부장 이원재) 등 11개 단체가 30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아프가니스칸 돕기와 평화를 위한 집회'. 이날 행사에 참석한 1천여명은 오는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릴 예정인 '아프간 2006 평화축제'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테러의 위험을 들어 반대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양 폭발사고'로 본 과학실험 문제점

보조요원없이 '위험한 실험'

주당 3~4시간 수업 불구

안전대책 미흡 '예고된 人災'

지난 29일 광양 K중학교에서 과학실험 도중 화학약품이 폭발해 수업 중이던 학생 10명이 크게 다친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만들어 낸 예고된 사고였다.

현재 전남도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과학실험 수업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까지는 주당 3시간, 중학교 2·3학년은 주당 4시간, 고등학교 1학년은 3시간의 수업을 받는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과학실험에는 교사에 준하는 전문 보조요원이 실험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내 각급학교의 경우 예산(학교운영비 3%·전남도교육청 권장사항) 등의 이유로 실험 보조요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감안,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실험은 시뮬레이션이나 교사 시범 실험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전 안전수칙 준수 확인 등 향후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남규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는 "과학교사들이 실험수업을 하려면 준비부터 상당한 노력이 들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담당교사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실험결과를 보여주려다 이 같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과학실험에서 화상을 입은 김모(13·함평 모초교 5년)군의 부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형수술비 등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과학실험 폭발' 교사 입건

광양 경찰은 30일 광양 K중학교에 발생한 실험실 폭발사고(본보 5월30일자 7면)와 관련, 이 학교 과학 교사 이모(여·35)씨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화학약품에 따라 불꽃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를 내 최모(16)군 등 학생 10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염화나트륨을 넣은 접시에 황색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메탄올을 추가로 붓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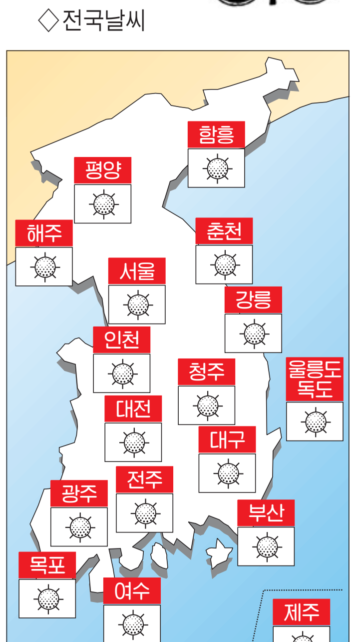
'투표하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5월 31일 (음 5월 5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5~29℃
목 포	맑음	15~27℃
여 수	맑음	16~24℃
완 도	맑음	13~27℃
구 례	맑음	13~30℃
해 남	맑음	12~27℃
장 흥	맑음	12~29℃
고 흥	맑음	13~27℃
순 천	맑음	12~30℃
영 광	맑음	14~27℃
진 도	맑음	12~28℃
전 주	맑음	13~29℃
남 원	맑음	12~30℃
정 읍	맑음	13~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4:59 16:38 썰물 10:17 21:59
여 수 밀물 11:18 --:-- 썰물 05:35 17:27

▲해뜸 05:20 ▲해짐 19:41 ▲달뜸 08:33 ▲달짐 23: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 씨						
최저/최고	16/30	19/22	18/25	17/27	17/28	17/27

문자메시지 하루 45건 보내

48% "취업위해 학원다닌다"

전남대생 사회의식 조사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하루 평균 45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대신문'이 '전대방송'과 '전남 트리뷴'(Chonnam Tribune)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전남대학교 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사회의식 조사'를 한 결과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 60건, 남학생 34건으로 여학생들이 두 배 정도 문자를 더 많이 발송했다. 또 1학년은 평균 67건인 반면, 4학년은 31건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자를 보내는 횟수가 적었다. 응답자 중에는 하루 700건을 보낸다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신문을 읽는데 하루 평균 29분을 할애했다. TV 시청은 1시간 14분, 인터넷은 2시간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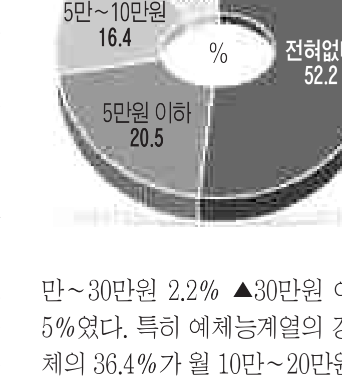
전공을 바꾸는 문제의 경우 응답자의 24.1%는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 48%는 '어느 정도 고민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민한 적 없다'는 대답은 27.7%에 그쳤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48%로, 한 달 평균 수강료는 ▲5만원 이하 20.5% ▲5만~10만원 16.4% ▲10만~20만원 8.2% ▲20만~30만원 2.2% ▲30만원 이상 0.5%였다. 특히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체의 36.4%가 월 10만~20만원의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성친구를 사귈 때 외모를 중요시하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남학생(4점)이 여학생(3.5점)보다 외모를 따졌다. 반면 경제적 능력은 여학생(4점)이 남학생(3.2점)보다 더 중요시했다. 이외 ▲성격 4.6점(이하 남녀 평균) ▲학벌 3.3점 ▲나이 3.1점 등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52.4%가 찬성했으며, 동성애는 58.3%가 반대했다. /이승배기자 lsb54@

전남대생들의 한달 학원비



오늘 제11회 바다의 날

전남 바다 쓰레기 '몸살'

대부분 양식장서 발생…중국서도 오염물질 대량 유입

매년 9만7천t 전국의 40%…수거제 예산부족 실효

전남의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름철 비가 올 때는 중국의 쓰레기가 서해 등에 대량 유입되면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양은 얼마나=한국해양연구원은 전남의 바다에 매년 9만7천533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굴과 고막 등 패류 껍질 6만1천t ▲태풍 등 자연재해나 방치된 폐선(廢船) 1만3천520t ▲양식장 자재 폐기물 1만2천500t ▲폐그물 1만513t 등이다.

연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25만t으로, 이중 전남은 전체의 40%에 달한다.

◇왜 많이 발생하나=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바다와 접해 있고, 해안선의 총 길이가 6천419km로 전국의 50%에 달한다. 어가는 2만3천호에 6만6천명(전국의 31%)이며, 어선은 3만5천693척(10만6천t·전국의 39%)에 달한다. 또 전국의 어장 중 55%(13만8천ha)가 밀집해 있는 점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이유다.

전남도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서해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쓰레기가 간조 때는 바다로, 만조 때는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여수시 등 전남의 일선 지자체는 어선이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고 있다. 일반쓰레기는 40kg에 4천원, 통발어구는 개당 150~250원, 로프 등 대형폐기물은 kg당 260원이다. 지난 2004~2005년 여수 등 6개 시·군은 10억원을 들여 1천230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어민들의 참여 저조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10년까지 바다 쓰레기 수거에 655억원(국비 46%·도비 13%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어장정화선 4척을 투입하고, 양식장 등에 굴 껍질 등을 부술 수 있는 '폐각분쇄기'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 스티로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폐스티로폼감용기'(대당 2억~2억5천만원)를 완도와 진도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

광주 교육위원 의정비 연간 3,864만원 결정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2007년 시 교육위원 의정비를 연간 3천86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에 따랐고, 월정 수당은 지난 3월 결정된 광주시의원 월정 수당의 85% 수준에 맞췄다.

심의위 관계자는 "업무 성격과 대표성, 광주지역 인구 대비 교육관계자 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